

해남읍 5일시장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만든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궤도...거점시설 본격 추진 2024년까지 사업비 142억원 투입 대규모 사업

해남읍 5일시장에 옥상정원과 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거점시설들이 조성된다고 30일 밝혔다.

해남군은 지난 26일 해남읍 5일시장 상인설명회를 갖고, 해남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추진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해남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올해 '아이랑 사랑방' '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센터' '해남창업 브랜드 플랫폼' 등 주요거점 시설 조성에 본격 돌입한다.

특히 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번 사업의 핵심축인 5일시장내에 조성되는 거점시설로 어물전동, 잡화동 2개동을 증축해 주민 문화공간과 상인상생센터, 건강센터 및 공유공방 등을 조성, 5일 시장이 문화와 소통, 교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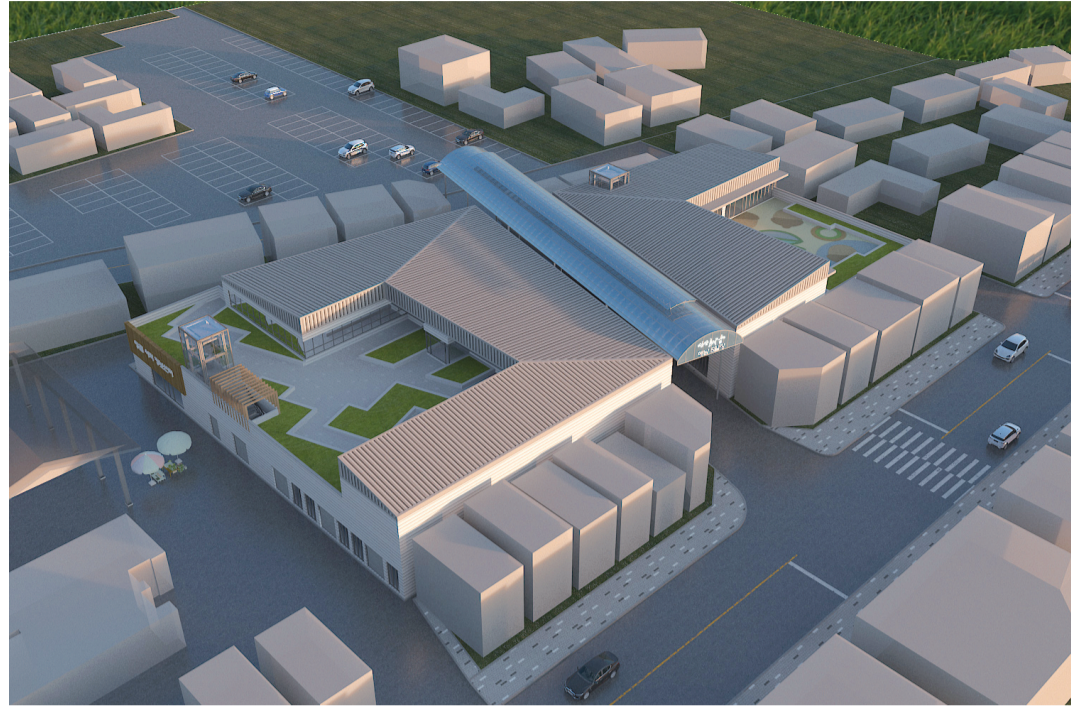
1층은 기존 5일시장을 리모델링해 한층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공간으로 재편하고, 두 상가동을 연결한 옥상에는 녹지 휴게공간과 마늘카페, 실내외 놀이터 등을 조성해 장날이 아닌 기간에도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 명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9월 중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공사기간 중 해당점포 상인들은 제1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시장에서 오일장을 열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사 개요와 함께 점포이전 일정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5일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해남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해남읍 고도리 일원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진행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 14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군은 '시장·길·천이 아름다운 해남읍 원도심 재생, 아이와 공동체의 미래를 키우는 행복살터 해남'을 목표로 읍 5일시장과 매일시장 등 전통시장을 지역 커뮤니티·창업·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고 특화거리를 조성, 상권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인 안심 고살길 조성, 매일시장과 5일시장을 잇는 상권특화거리 조성 등이 마무리됐다.

또 오는 10월 아이랑 사랑방 조성이 준공 예정이며, 창업브랜드 플랫폼 조성을 앞두고 공유주방 교



해남 도시재생뉴딜사업 해남5일시장 커뮤니티 센터 조감도.

육과 도시재생대학 및 마을활동가 교육 등 주민역량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낙후된 읍 시가지의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동감 넘치는 원도심의 부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과 힘을 합쳐 우리 군민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도시재생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소상공인 돕자

완도군, 배달앱 '떡깨비' 할인

완도군이 공공배달 앱 '떡깨비' 할인을 실시한다. 완도군은 떡깨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5000원 종이 상품권을 완도읍사무소 안 카페에서 배부한다.

배부 시기는 8월4일과 1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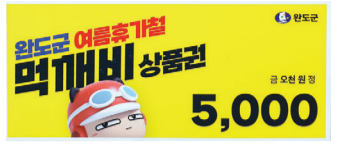
할인권은 한 사람당 5매까지 가져갈 수 있다. 사용은 8월31일까지 할 수 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권 사용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완도군 측은 설명했다.

할인권을 받으면 떡깨비 앱에서 주문하고 결제할 때 할인권 번호를 입력해 사용할 수 있다. 전남 공공 배달 앱 떡깨비의 중개 수수료가 1.5%로, 기존 수수료율(6.8~12.5%)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지역 소비자는 완도사랑상품권을 이곳에서 쓸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허동조 완도군 경제교통과장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공공 배달 앱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천일염 본격 생산 7월 정마가 끝난 지난 25일부터 신안군 지역에서 본격적인 여름철 천일염 생산에 돌입했다. 신안군에서는 올 봄 강우일수가 평년보다 많고 7월 정마가 길어 생산량 감소가 우려됐으나 상반기 생산량은 12만여톤으로 평년과 유사했다. <신안군 제공>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큰 산 넘었다'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광굴비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기 위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광군은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인해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 등록에 한발 다가갔다고 설명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공품의 명칭·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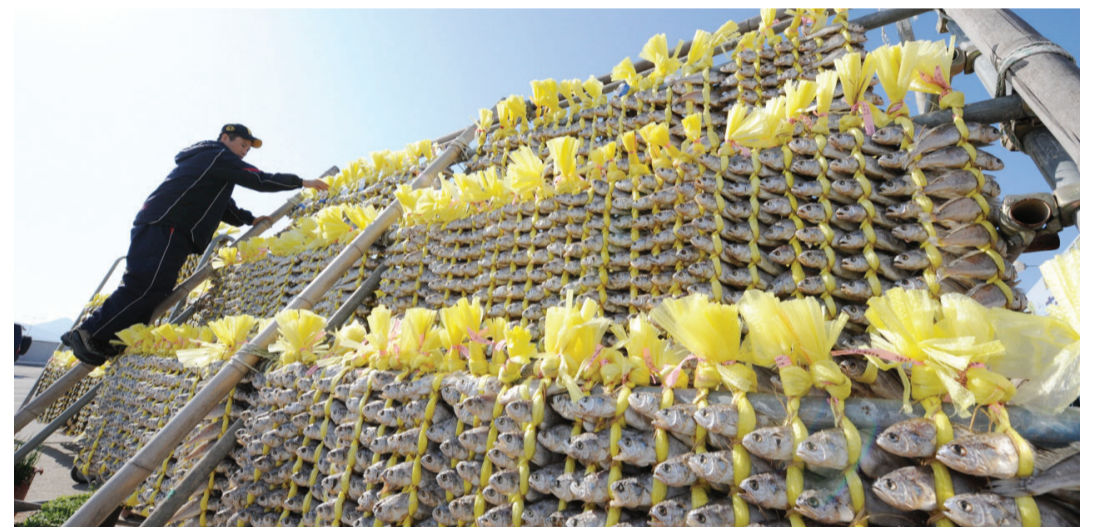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해당 수산물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어야 한다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이 발목을 잡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원재료의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서 고유한 가공방법으로 가공할 경우 지리적표시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유한 가공 기법을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영광굴비도 지리적표시권제 등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영광굴비의 특별한 맛의 비결은 조기를 굴비로



농수산물의 고유한 가공 기법을 인정하도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대한 법적 제약이 해소됐다. 영광 법성포에서 삶간한 조기를 말리는 모습. <영광군 제공>

만드는 과정에 있다. 그중 하나인 삶간인데, 양쪽 아가미와 입, 몸통에 간수를 충분히 뺀 천일염을 뿌려 수분을 빼고 간이 적당하게 배도록 하는 염장법이다. 그다음으로는 법성포로 불어오는 해풍으로 말리는 데 삶간한 조기를 짚에 엮어 걸어 겨울철에 얼렸다 풀렸다 하면 속살이 노릇한 황금색으로 마르게 된다.

영광굴비의 우수성이 공인되면 생산·가공·유통·체험 등과 연계한 6차 산업화와 지역특산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영광군 측 설명이다. 영광군은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영광굴비 지리적표시 등록에 큰 장애물이 해소된 만큼 남은 등록 심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목포시, 전국체전 자원봉사 참여 열기 후끈

1700명 모집에 2218명 신청

목포시는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에 목표 인원(1708명)을 넘는 2218명이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원봉사에는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신청했으며, 사회단체와 관계기관 등의 참여율도 높았다.

목포시는 지난 27일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했다.

교육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안전 교육, 인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체전 기간 개·폐회식과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안내소·홍보관 운영, 의료 지원 등 곳곳에서 활동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빛낼 주역인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전한다"며 "많은 자원봉사 참여로 열정과 감동이 있는 전국체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